

# 양산마을 소식지

Vol.7 2025년 2호

- 01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손재현 센터장님 인사말
- 02 통도아트센터 | 김상철 사무장 인터뷰  
하북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경남도 1위의 기쁨!  
마을공동체 한마당 빛속에서도 반짝였던 성과들
- 03 행복건강배후지원센터 | 노아병원에 퍼진 통기타의 따뜻한 선율
- 04 하북 웰니스센터 | 함께 모여 더 즐거워진 하북 웰니스센터
- 05 이팝문화센터 | 새롭게 단장한 도담도담 카페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 06 매화커뮤니티센터 | 한 권의 시화로 엮어낸 원동의 사계절과 마음  
폭염 속에서도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문화배달부의 여름
- 07 창기체험휴양마을 | 자연과 함께, 나를 위한 시간
- 08 양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로컬푸드로 찾은 양산의 맛, 음료·디저트로 피어나다.  
양산 로컬푸드로 시작된 가공상품 개발의 첫걸음
- 09 성과공유회 | 주민이 만든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다
- 10 찾아가는 문화배달부 2025년 활동 | 여섯 마을을 잇는 문화배달부의 발걸음



#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센터장님 인사말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센터장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고요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한 해 동안 양산 곳곳은 변화와 희망의 에너지로 생동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협업, 기관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열정, 그리고 행정 및 협업 기관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농촌재생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공동체 정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깃든 이야기와 추억들을 기억하고 이어주며, 이웃과의 따뜻한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재생사업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의 숨결을 되살리며 모두를 포용하는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딛는 작고 소중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세심한 배려와 나눔을 우선하고 주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여정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올해 우리가 정성껏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짝 꽃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특별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롭고 희망 가득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센터장 손재현 드림



## 통도아트센터

# 통도아트센터 김상철 사무장 인터뷰



통도아트센터/웰니스센터/  
행복복지배후센터  
김상철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북면에서 통도아트센터, 웰니스센터, 행복건강배후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 김상철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문화와 건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가요?

주민들의 변화입니다. 통도아트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듣고, 웰니스센터에서 건강을 챙기며 “이 공간이 있어 좋다”는 말씀을 들을 때 큰 힘이 됩니다. 두 공간이 하북면의 삶을 더 따뜻하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 제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통도아트센터 프로그램 중 반응이 특히 좋았던 강좌가 있다면요?

드럼·통기타·오카리나·사군자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 중이며, 특히 ‘시니어 모델’ 강좌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전국 대회와 초청 공연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전시와 공연이 함께 열리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북면 축제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통은 무엇인가요?

이 행사들은 주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자리입니다. 무대에 서고 작품을 전시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웰니스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은?

건강체크, 인바디 측정, 세라젼 의료기 이용, 운동 프로그램 등 실질적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협력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대가 어울리는 ‘웰니스 농촌’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공간이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통도아트센터는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웰니스센터는 건강과 쉼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 청소년 댄스교실, 필라테스 등 세대별 프로그램도 확대 중입니다.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시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용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관우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약 30명의 운영위원들이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며 함께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북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경남도 1위의 기쁨!

하북면이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남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힘을 모아온 주민들의 노력과 따뜻한 마음이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을의 문화와 복지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하북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통도예술마을 협동조합은 지난 10년 동안 주민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문화강좌를 꾸준히 이어오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일궈온 성과를 중심으로 서면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서면평가를 넘어 현장평가에서는 오카리나, 시니어모델, 손가락난타 강좌의 수강생분들께서 시간을 내어 호흡을 맞추고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함께 연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한 그 따뜻한 마음이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하북면 주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마을 마음이 오가는 공동체로서 하북면이 더 행복하게 변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마을공동체 한마당 빛속에서도 반짝였던 성과들



가을 햇살이 아쉽게 비에 가려졌던 10월 18일, 통도아트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행사장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한마당은 1년 동안 통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문화강좌의 성과를 전시와 공연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무대에서는 시니어모델, 오카리나, 손가락난타, 합창, 드럼, 배후지원센터 통기타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3층 전시실에서는 사군자, 천아트, 어반스케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사군자·천아트 체험 부스는 준비한 재료가 모두 소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이 속속 탄생하며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시 ON 디제이 기초반'을 통해 양성된 주민 DJ들이 사연과 음악을 전하며 카페소소의 분위기를 더욱 포근하게 채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함께 웃고 박수치며 만들어낸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정성과 열정이 빛어낸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도아트센터는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공동체로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노아병원에 퍼진 통기타의 따뜻한 선율



행복건강배후지원센터 통기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상북면 내석리에 위치한 노아병원을 찾아 음악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병원 원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강생들이 그동안 수업에서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통기타 강좌는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배운 것을 실천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은 "수업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통기타 문화강좌의 매력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연계가 이어져 문화활동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북 웰니스센터

# 함께 모여 더 즐거워진 하북 웰니스센터



당구교실

하반기 당구 교실은 상반기보다 한층 깊어진 '실력 향상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웃음소리와 공 굴러가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수강생들은 서로의 자세를 봐주고 응원하며 조금씩 성장해갔습니다.

“당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는 말처럼, 취미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세 청춘 사진 교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이 문장을 마음에 두고 시작된 청춘 사진 교실에는 약 30명의 주민이 참여해 소중한 순간을 남겼습니다. 김상철 사무장의 따뜻한 시선 아래 촬영이 진행되었고, 통도예술마을협동조합 사진분과 운영위원들이 메이크업 봉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삼삼오오 찾아온 주민들은 간단한 메이크업을 받고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수줍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표정 속에는 오래 기억될 '나의 가장 젊은 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년 KPOP 댄스

총 12회 동안 진행된 청소년 K-POP 댄스 수업은 매주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수줍게 시작했던 첫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채워졌고 서로의 움직임을 맞춰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완성해갔습니다. 약 10명의 청소년이 함께 호흡하며 만든 이 시간은 단순한 댄스 수업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팝문화센터

# 새롭게 단장한 도담도담카페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이팝문화센터 1층에서 운영되던 도담도담 카페가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 이전된 카페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시그니처 메뉴 '이팝라떼'가 카페의 즐거움을 더하며,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가며 따뜻한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카페 리모델링 과정에는 이팝문화센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정성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공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가구를 카페에 기부함으로써 카페가 한층 더 아늑해졌습니다. 또한 플랜테리어 교육을 통해 카페 주변 정원을 가꾸며 계절에 맞는 꽃을 심고 관리 방법을 익힘으로써 주민들이 즐겁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손길과 마음이 담긴 도담도담 카페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휴식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팝문화센터 도담도담 카페가 주민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며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따뜻한 순간이 모이는 장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한 권의 시화로 엮어낸 원동의 사계절과 마음

매화커뮤니티센터의 대표적인 문화강좌인 시화교실은 올해 상반기 ‘시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주민 간의 마음을 잇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원동면 시화집’ 제작을 위한 본격적인 시화 창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시화교실은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시화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참여자들은 일상 속 순간과 감정을 시와 그림으로 풀어내며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작은 수료식을 진행해, 서로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에 따뜻한 박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을 쓰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잊고 있던 마음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라는 말처럼 시화교실은 단순한 창작의 장을 넘어 자기 성찰과 정서적 회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시화교실에서는 자작시와 함께 다양한 형식의 시화가 탄생했는데요. 손글씨로 마음을 담은 작품부터 물감과 색연필로 그려낸 작품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원동의 사계절과 주민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화들은 울거울 한 권의 시화집으로 엮여 ‘원동의 마음을 담다’라는 이름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를 통해 나는 웃음과 위로,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스며들어 마을의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화집 원동의 마음을 담다



# 폭염 속에서도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문화배달부의 여름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문화배달부 수료생들은 원동면 매화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배후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폈습니다. 홍보용 부채와 폭염 안전수칙 안내물 등을 준비해 두 개 조로 나누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안전수칙을 알리고 문화배달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조사해 앞으로의 활동과 연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곳곳에서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문화배달부들은 첫 현장 경험을 통해 소개·안내 방식과 향후 활동 방향을 익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리·선리·영포·장선·어영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주민과 소통하며 배려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배달부는 주민 가까이에서 문화와 안전을 함께 전하며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양산시민 초청행사

# 자연과 함께 나를 위한 시간



여름 햇살 아래 싱그러운 정원이 돋보이는 창기마을체험휴양관에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첫 초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단체 체험객만 이용가능했다면,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체험관의 자연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청행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시민들은 직접 재배한 허브와 꽃으로 로즈마리 미스트를 만들고 따뜻한 꽃물에 손을 담그며 아로마 마사지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험 후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SNS에 후기를 공유하며 오늘의 즐거움을 나누었고 향후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피드백도 공유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기마을체험휴양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유와 즐거움을 전할 계획입니다.

양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로컬푸드로 찾은 양산의 맛, 음료·디저트로 피어나다.



# 양산 로컬푸드로 시작된 가공식품 개발의 첫걸음



신기한마을고고씽협동조합은 2025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시 로컬푸드를 핵심 소재로 한 음료·디저트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카페 고고씽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 농산물 활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기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양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양산시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산시 농업인과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협동조합 비전스쿨'을 진행하며 협동조합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동의과학기술대학교 구영덕 교수님과 서미화 교수님의 전문 지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특히 양산에서 생산되는 제철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산 딸기와 대추, 사과, 블루베리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차, 에이드, 라떼를 만드는 과정은 교수님의 시연 후 참여자가 직접 제조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제 카페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비전스쿨 교육에 참여해 로컬푸드의 가치, 가공식품 개발 절차, 조직 운영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업 구조가 형성되었고, 지역 농업인들이 한 팀으로 모여 '양산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해 딸기 오란다, 대추차, 말차라떼, 제철 과일 에이드 등 다양한 메뉴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음료·디저트의 특징에 맞춘 포장 방법과 보관 기준까지 함께 실습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가공식품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하여 센터 내 가공 장비를 활용해 개발될 예정이며, 상복면에서 재배되는 당근을 활용해 당근 사과주스, 당근 마들렌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향후 당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산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개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은 양산 로컬푸드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역 농산물을 카페 메뉴에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뉴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주민이 만든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다

2025년 11월 28일 오후 5시, 농촌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들의 성과를 나누기 위한 성과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쌓여온 변화와 노력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로, 주민 주도형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재생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통해 성취와 자긍심을 느끼고, 지구 간 교류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컸습니다.

행사장에는 원동면, 하북면, 수서권역, 창기마을 등 각 지구 주민들이 준비한 작품들이 한 자리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림, 공예품, 대표제품들까지, 모든 성과품은 그동안의 시간과 정성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라인댄스, 손가락난타, 통기타 합주 등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즉석에서 통기타 연주에 합류하는 깜짝 순간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뜨겁게 달궜고,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진정한 '함께의 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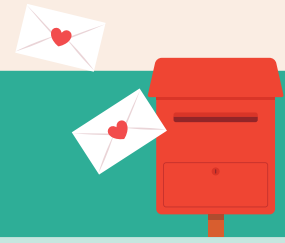
무대에 선 사람도,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이 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공연이 이어질수록 현장은 더욱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찼고,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꽃피었습니다. 서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누군가의 도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순간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순히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연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주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촌재생의 진짜 힘은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는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따뜻한 만남이 오래 이어져, 지역 곳곳이 더 활기차고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되는 우리



# 찾아기는 문화배달부 2025년 활동



## 여섯 마을을 잇는 문화배달부의 발걸음

### » 대리마을



### » 선리마을



### » 어영마을



### » 영포마을



### » 위천마을



### » 태봉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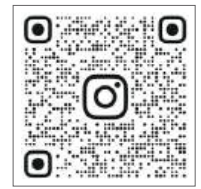


###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양산의 도시와 농촌, 행정과 주민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자치의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 오시는 길



50619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 2길 33-1(북부동) 3층  
전화 055-382-9196  
팩스 055-382-9198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양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src.or.kr](http://www.ysrc.or.kr) | 인스타그램 [ys\\_village](https://www.instagram.com/ys_village)  
발행처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발행일 2025. 12.  
디자인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